

##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1~34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건이 많은 사람은 싸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자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상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우리의 쓰러진 과거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 입니다. 구원은 너무나 좋은 것이며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네가지 근거를 사도바울은 질문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오늘, 사도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연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마주 대항할 세력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질문을, 도전을 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고 보잘 것 없고 몇 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문제들, 아니 한 달만 지나가도 없어질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

값을 대신 치르도록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그 부모님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 그 부모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아들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괴롭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겠다. 내 영광 가운데 너를 두겠다”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 까지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병들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 속에 담으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회상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쏟아 부어주셨던 축복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조국, 부모,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고기와 짐승과 꽃과 풀과 그리고 공기와 물과 가축들을 다 주셨는데, 이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값을 매겨서 팔아먹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천국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현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팔 때 그것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때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세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찰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잖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뽑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하여 뽑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  
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  
억하고 계십니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한 사람입니  
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고발을 당합니다.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의 통제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  
다. 포로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야 하고 죄인은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면 그곳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포로들은 늦잠을 잘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합니다. 입고 싶은 옷도 입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  
게 그 법칙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칙 아래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은 의롭  
다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의미합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능력과 나를 고  
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못자게 하고 우  
울증에 빠지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것  
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로수용소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많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악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악몽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 질문이 34절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고 고소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고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빛을 탕감 받았습니다. 빼앗긴 토지가 반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소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을까요? 34절을 보면 3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죄 받지 않는 근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치 못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26절과 27절을 다시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 한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두 분은 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망해도, 병들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병들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시험을 당해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현실적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들의 형상에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즐기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를 받고 모함을 얻고 분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기억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넘어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해 주옵소서.

느끼게 해 주옵시고 열매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